

## 불타올라야 하는 20대

나는 사람들이 '한창 좋을 때'라고 부르는 나이를 보내고 있다. 중장년층 어른들은 물론이고 선배들과 고등학생 후배들에게도 스무 살은 부러움의 대상으로 비친다.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가요에서 스무 살은 두근두근 설레는 캠퍼스라이프를 보내며 패기와 도전정신으로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맥주 광고나 대학 홍보 영상에 등장하는 20대는 언제나 뜨거운 청춘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나의 스무살은 그렇지 않다.

막상 스무 살을 맞았을 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동이 틀 때까지 술을 마시고 강남 한복판을 서성이거나 담배 냄새나는 친구 자취방에서 끝없이 술을 들이붓는 경험은 분명 스무 살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금기에 관한 환상이 깨진 이후 남은 건 공허함뿐이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 대학 서열에 얽매여 눈치 보는 친구들, 취업을 걱정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서 화려한 20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두근두근 설레는 캠퍼스라이프를 보내야 할 것 같았고, 패기와 도전정신으로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았다. 그런 내가 20대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불안했고, 당장이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불안했다. 집에서 홀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듯한 묘한 기분으로 스무 살의 절반이 흘러가고 있었다.

꼭 맥주 광고 같은 20대를 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한창 좋을 때'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한 학기가 걸렸다. 사회는 20대에게 소비와 도전을 요구하며 정형화된 이미지를 생산하고, 열정이나 청춘 같은 벅차오르는 단어들로 20대를 규정한다. 나는 지난 한 학기 동안 그 틀에 나를 끼워 넣으려고 했다. 온종일 침대에서 뒹굴거나 친한 친구 몇 명과 저녁을 먹는 것이 더 즐거운데도 불구하고, 불타는 금요일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시끄러운 거리와 모임에 나가는 수고를 했다. 그저 나의 방식으로 재미를 추구하면 그것으로 충분한데도 말이다.